

특별기획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선정

익산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사업에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선정...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사업은 지역현안에 대해 일반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숙원사업 또는 생활밀착형 주요업무 등 주민의 욕구가 큰 지역현안을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100년의 외출'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중앙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근대건축물을 복원하는 리모델링 사업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심화회의, 워크숍, 현장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회원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종인)는 지난 19일(일)부터 25일(토)까지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및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기업은 (주)엘드비전코리아, (주)지앤엘테크, (주)아트렉, (주)해성지테크, (주)대정, (주)호반산업, (주)에이피에스, (주)우성이앤에스, 픽스테이(주), (주)풍림파마텍 등 9개사에 이른다.

참가기업은 현지제조사협회 방문 및 간담회, 1:1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시장진출을 위한 초석을 닦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속적인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린 결과 수출계약 3건, 173만불의 수출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야간 보행환경 취약지역 LED보안등 조도개선공사 완료

군산시가 야간 보행환경 취약지역과 우범지역 해소로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시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 건의사항과 자체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대야면 번영로 등 50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16일 '취약지역 LED보안등 조도개선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사비 5천만원을 들여 수명이 길고 연색성이 우수한 백색광의 LED제품 보안등을 설치해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길을 조성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6.25 참전유공자 12명 발굴

군산시는 6·25전쟁 66주년을 맞이해 지난 2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참전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국가보훈처에서 2013년 명예로운 보훈 실현을 위해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 추진으로 신규 등록된 군산시 거주 6.25 참전유공자 12명에 대해 '호국영웅기장'이 수여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호국영웅기장'은 훈·포장과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 등을 기리며 수여하는 기념장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기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는 이 나라를 지켜내신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조국 수호를 위해 바친 값진 희생과 헌신 덕이며,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①위기의 군산경제

사계절 문화 · 관광도시로 전환해 경제 활성화

군산 지역경제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회복이 엇갈리는 등 기업 의존도가 높아 경제침체의 골이 깊은 현 시점에 관광사업으로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OCI 등 산업단지에서 지역 세입의 총 18%를 거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기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 지역경제가 출렁여왔다.

과거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2000년 외환위기 때 부도 처리되자 군산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조선경기 침체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자 지역소비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말까지 군산지역 산업단지 가동률도 군산국가산단 58.2%, 군산2국가산단은 77%에 머물러 경기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군산국가산단단지지와 군산2국가산단단지에 입주한 635개 업체다.

이중 군산국가산단단지에서 가장

글 쓰는 순서

①위기의 군산경제

②군산 관광산업의 현주소

③지역관광의 발전방향과 문제점

중인 업체는 177개뿐이며 건설 중 18개, 휴폐업 4개, 미착공이 1개로 각각 나타났다.

군산2국가산단의 경우 458개 중 369개만이 가동하고 건설 중 48개, 휴폐업 15개 업체, 미착공 업체 26개에 달한다.

이런 수치는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세아베스틸, OCI 등 대기업 생산이 활발한 2010년 군산국가산단 89.9%, 군산2국가산단은 83%에 비해 크게 낮다.

공장 가동이 멈추다보니 고용률도 덩달아 하락해 2014년 1만 8492명이던 고용자가 2015년에는 1만 6795명으로 2000여명 가량 줄었다.

이처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군산 산업단지 전경

지역 경제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며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군사산업단지 입주 대기업들이 인원 감축·조업 단축·건축 재정 등을 하면서 협력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완공 때 5700여명이던 근로자를 3700여명으로 줄였다.

두산인프라코어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

행 중이고, OCI 군산공장도 1교대로 조업을 단축했다.

이런 경기불황은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최근 3년새 폐업신고 식당 수가 124개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불황을 기회로, 군산의 장점들을 살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해 '사계절 문화 관광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례로 국내 조선업의 중심지인

경남 통영시는 해양관광국을 신설하고 '관광도시 통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 여수시도 조선산업 침체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여수는 지난해 1357만명이 다녀간 관광객 1인당 지출을 5만원씩 추산하면, 6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3산단 기술선도형 강소기업들 투자 결정

하영종합상사 등 3개 업체 67억원 투자 60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 제3산업단지에서 기술선도형 강소기업들의 잇단 투자가 결정돼 지난 24일 하영종합상사 등 3개 업체가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67억원의 투자와 6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시의장, 최일웅 (주)정정소재 대표, 황선호 명진칼라관 대표, 하영종합상사 김선오 대표가 참석했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미원상사 등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합작기업인 (주)KFS 등 5개 기업과는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40억원의 투자와 720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량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정현을 익산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들은 물론 기업인과 시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기업유치 시장의 최우선 성과로 추진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투자협약을 체결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공무원 추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1개 업체는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권유와 설득으로 성사된 것으로 익산시의 기업유치에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영종합상사는 2013년 창업 이후 면장갑 생산과 연구개발에 집중한 결과 매년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

아 올해 연말부터 미국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0명진칼라관은 경기도 안성시에 본사를 두고 20여년간 지방 자재생산 및 사공을 해 온 업체로 전국 각지의 아파트, 공장, 주택 등의 공사현장에서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정정소재는 친환경 하수슬러지 탈취제 전문 생산기업이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은 투자를 결정한 3개 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투자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 접수

군산시는 '2016년 2차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의 접수를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일반공모와 기획공모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과 관련한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공모는 도시재생사업지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사업체 총사자 또는 단체인 신청 가능하다. 기획

공모는 거주지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인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반영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주민제안사업도 함께 공모한다. 아울러 군산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설명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컨설팅과 함께 실무협력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찾아가는 도시재생팀'을 구성해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결과 상담, 기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중라시푸,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협약

지난 23일 오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중국 사천성 닭 가공업계 전문기업인 라시푸가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라시푸의 칭치엔, 정위메이 공동대표, 박창호 한국대표와 함께 농식품부, 전라북도·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닭 가공 식품기업인 라시푸는 중국 내 30여개 인터넷 직거래 판매점과 6개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다.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made in Korea' 생산하여 중국에 역수출하는 것이 큰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에 최종 투자결정 했다.

이들은 국내 유통과 홍콩 등 해외에 닭 가공 제품을 수출할 계획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생산시설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으로는 최초로 임대지역이 아닌 산업부지 분양 입주를 목표로 생산 공장 착공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총학생회 7일간 김제서 여름 농촌봉사활동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학생회관 앞 새세대 광장에서 2016년 여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갖고 6박 7일간의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농촌봉사활동은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 동안 김제시 일대 진봉면을 비롯한 10개 면에서 진행되며, 4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조별로 배정된 지역에 파견된 학생들은 포도농장과 과수원 등에서 일손을 돕고, 밭일을 비롯해 하우스 작업, 배수로 정비, 마을정소 등 노력봉사에 나선다.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펼쳐지는 원광대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은 농촌과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6박 7일의 봉사활동 일정을 모두 완료한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교과목 2학점도 인정된다.

민희수(토목환경공학과 4년) 총학생회장은 "장마철을 맞아 비록 날씨는 후덥지근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농촌 지역 일손 돕기에 나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미숙한 점으로 인해 농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학생회관 앞 새세대 광장에서 2016년 여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갖고 6박 7일간의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손 돕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 격려를 위해 발대식에 참석한 정정권 교학부총장은 "손길의 필요로 농촌 마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선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며,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6박 7일의 일정을 사 고 없이 건강하게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31개 단지 안전점검

군산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1개 단지에 대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지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이러한 요소들이 시민의 안전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주택법을 근거로 의원발의를 통해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가 정비된 바 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중 예산범위 내에서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서로 31년 이상 최고 42년이 지난 31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 파악과 해소방안 마련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방침 결정의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